

I. 經濟

景氣와 成長

- 上半期 經濟 成長率: 전년 동기 대비 8%대 推定
- 成長率 上昇 原因 : 생산, 투자, 수출 등 전반적 産業 活動 호조
- 景氣 論爭 再燃 : 경기 상대의 過大 評價로 긴축 정책 憂慮
- 下半期 景氣 展望 : 經濟 成長率은 7%대를 유지할 展望

- 景氣 實績 (KDI 추정 보고)

- 94년 2/4분기 경제성장률: 9%
- 상반기 경제성장률: 8%

- 上半期 部門別 實績

- 生産·出荷: 91년 4/4분기이후 처음 두자리수 증가율 (생산 10.5%, 출하 11.1%)
- 投資: 93년 하반기부터 높은 증가세 유지
 - 94년 상반기 기계 수주액 27.2% 증가 (93년 상반기 5.5%)
 - 기계류 수입 허가액 59.2% 증가 (93년 상반기 -1.5%)
 - 국내 건설 수주액 15.5% 증가 (93년 상반기 0.6%)
- 輸出: 상반기 12.5% 증가, 7월중 15.0% 증가
- 産業活動動向: 상반기 평균 가동률 82.6% (완전 가동 수준)
 - 6월중 실업률 2.1% (완전 고용 수준)

- 下半期 景氣展望: 景氣回復勢는 이어질 것이나 成長率은 7%대로 낮아질 전망.

- 하반기 경제성장률이 상반기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되는 것은 작년 하반기 경기 상태(6.6% 성장)가 상반기(4.4% 성장)보다 호전되었기 때문임.

- 景氣局面의 過大 評價: 최근의 경기회복을 나타내는 지표들은 93년의 경기침체기와 비교된 것들로서 현재 景氣 局面을 過大 評價할 소지가 있음.

- 景氣 兩極化가 해소되지 않고, 不渡率이 지속적으로 상승(92년 0.123%에서 94년 5월 현재 0.173%)하고 있는 점 등은 아직까지 경기 회복 양상이 경제 전체로 확산되지 않았음을 나타내 줌. (유 병 규)

賃金 및 勞使關係

- 賃金交渉 妥結進度가 전년도 보다 빨라짐
- 賃金引上率은 전년도 보다 2.2% 포인트 높아져 상향세로 반전
- 勞總-經總 합의선인 5.0%-8.7%의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의 붕괴양상
- 勞使紛糾과 노동손실일수는 계속 줄어드는 추세

- 賃金交渉 妥結進度: 전년도에 비해 다소 빨라지고 있음.
 - 종업원수 100인 이상 기업의 타결진도(=타결기업/전체대상기업): 94년 8월 4일 현재 80.6%(93년 동기 76.5%)
 - 30대그룹의 타결 진도는 전년도와 비슷함 (94년 8월 4일 현재 74.0%).
 - 업종별 타결진도: 제조업 89.5% (가장 빠름), 금융업 55.4% (가장 늦음)

<협약임금인상률의 연도별 추이>

	88	89	90	91	92	93 상반기	94 상반기
임금인상률	13.5	17.5	9.0	10.5	6.5	4.9	7.1

- 平均 協約引上率: 94년 들어 상승세를 보임.
 - 평균 협약인상율은 통상임금기준 7.1% (94년 8월 4일 현재, 전년 동기 4.9%)
 - 기업 규모가 클수록 평균 협약 인상률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임.
 - 노총-경총 합의 상한선인 8.7%를 초과한 임금인상 기업수는 39.2%, 근로자수는 23.0%임.

- 勞使紛糾과 勞動損失日數: 줄어드는 경향을 보임.

(채 창 균)

<기업규모별 협약임금인상율, 94년 8월 4일 현재>

	(단위: %)			
기업규모	100-299인 이하	300-499인	500-999인	1,000인 이상
인상율	8.9	8.1	7.6	5.9

<노사분규발생건수와 노동손실일수 추이>

	90 상반기	91 상반기	92 상반기	93 상반기	94 상반기
발생 건수	253	187	146	88	48
손실 일수	3,225	1,921	730	355	250

下半年 物價 不安

- 7月末 消費者 物價:	전년말 대비 5.2% 상승
- 物價 上昇 主要原因:	가뭄에 의한 농축수산물 가격의 급등
- 政府의 安定 對策:	총수요관리를 위한 통화 긴축
- 政府對策의 副作用:	금리 불안 (콜금리가 법정상한인 25%까지 상승)
- 年 末 展 望:	정부 목표치 6.0%보다 약간 높은 6.2-6.3%

-7月 物價上昇의 主要原因: 가뭄에 의한 농축수산물 가격 급등

- 7월말 소비자물가: 전년말 대비 5.2% 상승, 전년동기 대비 6.9% 상승
- 7월분 물가상승률 0.85% 포인트 중 0.69% 포인트가 농수축산물 가격상승분임
(자료: 통계청, 『소비자 물가』, 94.7.)

-下半年 物價不安 要因:

- 농축수산물의 수급 불균형
- 국제원자재가 상승
- 경기 회복에 따른 개인 소비 수요의 증가

-政府 對策

- 총수요관리를 위한 통화긴축과 가계 자금의 대출 억제
- 부족한 농수산물의 조기 수입 확대
- 각종 요금 및 가격 인상 억제

-전망

- 연말물가는 6.2-6.3% 수준에서 억제될 것으로 전망

<소비자물가 추이 및 전망, %>

	I	II	III	IV
93	2.7	4.2	4.9	5.8
94	3.3	4.3	5.7	6.2~6.3

(홍 순 직)

엔貨 換率

- 最近 動向: 7月 28日 이후 100엔 수준에서 등락
- 달러 強勢要因: 美 政策當局者들의 달러가치 지지 및 金利 引上 시사
- 달러 弱勢要因: 미국 경기성장속도 둔화
정부조달부문 미일 통상협상 난항
- 엔貨 換率展望: 短期 100, 年末 100-105, 95年 105

- 최근 달러화는 100엔대 進入試圖를 거듭하고 있으나 아직도 弱勢要因이 많이 있음
- 7월 28일 이후 100엔에서 등락

<최근 환율 추이>

	25	26	27	28	29	1	2	3
¥/\$, 뉴욕	98.85	99.15	98.55	100.10	99.85	99.45	100.35	100.35

- 달러 強勢要因: 美國 政策當局者들의 달러지지 발언과 金利引上 可能性 시사
- 버그스텐은 엔貨換率在 100-110 수준에서 고정될 것이라고 발언 (目標換率帶)

- 달러 弱勢要因: 美國 景氣成長速度的 鈍化가 예상되고
- 政府調達部門 美日 通商協商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음
- 美國 景氣成長速度 鈍化 예상:
 - 2/4분기 성장률이 예상치(4.0% 이상)보다 훨씬 낮은 3.7%를 기록하고
 - 3.7% 성장의 상당부분이 재고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
 - 非農業製造業雇傭者數의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어
 - 하반기 성장률의 둔화가 전망됨

- 엔貨 換率의 展望: 短期 100, 年末 100-105, 95年 105
- 短期的으로 엔貨는 美日 通商協商의 진행정도에 따라 100수준에서 등락 전망
- 年末에는 美國의 金利引上(예상)으로 100-105수준으로 결정될 전망
- 95년에는 100-110수준이 전망되는데, 이는 미국 경기가 2.5-3.0%의 성장세를 지속하여 美國의 目標換率帶(100-110)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임.

(한 상 완)

株式 市場

- 動向 : 작전 관련 個別 種目的 下落 심화
- 展望 : 全體場勢 下向調整속에서 初高價 優良株와 低PER株의 上昇 豫想

<動向>

- 지난주 주식 시장은 그동안의 상승세를 이끌어왔던 個別 種目들의 下落勢가 돋보인 한 주였음. 이에 따라 종합주가지수는 920대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음.
 - 이는 그동안 분분했던 일부 기관투자가와 전문투기꾼이 주가를 조작하였다는 作戰說에 대한 증권감독원의 조사설이 구체화된 데 따른 것이었음.
 - 전체 장세가 혼조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초고가 우량주와 저PER주는 상승세를 이어 갔고, 核心 블투칩에 매기가 물리기도 하였음.
- 그러나 상승세에 限界를 보여 조정 장세가 좀 더 이어질 것을 시사하였음.

<展望>

- 최근 주식 시장의 需給이 不均衡을 이루고 있음.
 - 8월 초와 8월 중순의 기업 공개 물량은 3천억원에 이르나 고객 예탁금은 2조 8천 억원에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음.
 - 이와 함께 투신사에 대한 韓銀 특용 상환, 통화 긴축등을 고려할 때 수급 불균형의 개선 기미는 없음.
- 이에 따라 증시는 당분간 종합주가지수가 920-940을 유지하는 전체적인 조정 장세속에서 종목별로는 超高價 優良株 중심의 部分的인 上昇勢를 나타낼 것으로 보임.

(강 천 모)

債券市場

- 債券市場 動向 : 회사채 수익률이 9개월만에 13%대로 상승
- 收益率 上昇要因 : 통화긴축, 은행의 지준적수 부족, 기관 매수세 취약
- 債券市場 展望 : 8월 중순 13.5%, 연말 12.5-13.0%

<動向>

-지난주는 당국의 긴축적 통화관리와 은행의 支準適水 부족에 따른 금융권간의 자금 경색으로 단기 자금시장 혼란이 있었음.

-이에 따라 은행 등 주요 금융기관들이 채권 매수를 기피하였고, 콜금리가 법적상한 선인 25.0%까지 치솟는 등 각종 채권 수익률도 급등세를 보였음.

- 會社債 수익률이 발행 물량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매수세력의 위축으로 8월 4일 현재 13.10%로 상승(93년 11월 16일 이후 9개월만에 13%대 기록)

<展望>

-다음주 資金需要는 투신사의 韓銀 特融 償還 8,500억 원을 비롯하여 만기 도래 채권 및 유상증자 납입금 등 총 35,370억 원에 달함. 그러나 채권 매수세는 소극적일 것으로 보여, 채권 수익률의 상승세는 13.5%를 저지선으로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.

-단기전망: 13.5%, 연말: 12.5-13.0%

(박종곤)

金融關聯 이슈

1. 土超稅 違憲判決 따른 綜合對策 마련 着手
2. 金融實名制 實施 1年과 그후 變化
3. 資金市場 일대 混亂(新規貸出 中斷, 콜금리 25%까지 上昇)
4. 3個 投信社 韓銀特融 8천5백억원 償還 議決
5. 30大 財閥 出資限度 40%에서 25%로 縮小

1. 土超稅 違憲判決 따른 綜合對策 마련 着手

-토지초과이득세법은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 사유재산권보장등 자유민주주의 경제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음.

- 이에 따라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대응방안으로서 토초세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되 헌법에 불합치되는 것으로 지적된 조항을 개정 또는 폐지 예정.
- 토지과다 보유와 부동산투기 억제를 겨냥한 토초세의 본래 취지를 담은 새로운 입법 추진.
- 토초세의취지를 반영한 종토세의 발전 방안 마련 예정.
- 내년부터 토지 실명화 본격 추진 예정.

2. 金融實名制 實施 1年과 그후 變化

-실명전환 고액예금 11월 부터 자금 출처 조사

- 금융실명제가 실시된지 1년이 된 현재까지 실명전환을 하지 않은 가차명 예금에 대한 과징금이 오는 13일부터 금융자산 가액의 20%로 인상됨.

-가·차명 실명전환 과징금 13일부터 20% 부과

- 정부는 실명전환의무기간중에 실명으로 전환한 고액예금(총 2억원 이상) 1만6천건에 대해 오는 11월부터 자금출처를 조사하고 실명제실시로 중단됐던 금융기관의 이자소득세원천징수자료의 국세청통보를 내년부터 재개할 방침임.

3. 資金市場 일대 混亂(新規貸出 中斷, 콜금리 25%까지 上昇)

-금융당국의 통화긴축 기조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분부족을 우려한 시중은행이

사실상 신규대출을 중단에 들어갔음.

-향후 시중자금사정이 경색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콜금리가 법정상한인 25%까지 치솟는 등 자금시장에 일대 혼란양상이 나타나고 있음.

-또 급전을 조달하기 위해 은행들이 CD(양도성예금증서)를 덤핑매각하 면서도 CD유통 수익률이 15.0%까지 급등했으며 회사채유통수익률도 13.0%를 기록했다.

4. 3個 投信社 韓銀特融 8천5백억원 償還 議決

-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4일 한국, 대한, 국민 등 3개 투신사에 대해 한은특용 2조1천 5백억원 가운데 오는 12일에 만기가 돌아오는 8천5백억원을 상환하도록 하고 나머지 1조3천억원은 재지원하기로 의결했음.

· 투신사별 상환금액은 한국 3천4백억원, 대한 3천억원, 국민 2천1백억원이고 상환후의 한은특용 잔액은 한국 4천6백억원, 대한 4천9백억원, 국민 3천5백억원임.

5. 30大 財閥 出資限度 40%에서 25%로 縮小

-공정거래위원회는 재벌그룹의 문어발식 확장을 억제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상 타회사 출자한도를 현행 순자산의 40%에서 25%로 대폭 낮추되 3년간의 유예기간을 줄 방침임.

· 그리고 '96년까지 자기자본의 2백% 이내로 줄이도록 돼 있는 계열사간 상호 채무보증한도도 96년이후 하향조정될 계획임.

· 이와함께 재벌그룹의 소유분산을 유도하기 위해 주식분산이 잘되고 재무구조가 양호한 기업은 대규모 기업집단에서 제외시켜주거나 주식분산 정도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.

(천 일 영)